내근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삼위일체 대축일 2016,5,22,(다해) 제1999호



주교좌 범어대성당 성전〈사진 : 문화홍보실〉

† 오늘의 전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요한 16,15)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체험으로 그분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잠언 8,22-31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요한 16,12-15.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화 답 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삼위일체 대축일

최호철 안토니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 관장

예비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입문하면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리 내용 가운데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척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믿는 신앙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신앙인들에게는 삼위일체이신하느님께 대한 체험이 있었기에 하느님께 대한이해와 신앙이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성부"이신 하느님은 가장 원 천적인 체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을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이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체험은 가장 쉽고 가장 가깝고 가장 기쁜 체험이었습 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 께 생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행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하느님의 뜻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넘어 부활함 으로써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 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신 하 느님께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 고. 성령이신 협조자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 주 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 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 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성령은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 었으며, 성령은 이제 교회를 지켜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 신자들이 체험한 하느님 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셨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삶 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늘 언제나 "성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성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 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삶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더욱 충만해졌습 니다.

사랑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나누고 교환하고함께 하는 삶의 원형은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서로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우리와도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며 항상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십니다.

교우 여러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계십니다. 사랑을 베푸시 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黑

가정, 가장 작은 교회

꿈꾸는 가정

강영목 요한보스꼬 신부 | 교구 가정담당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즐겨 표현하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도 커나가지 못합니다.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를 위해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양심 성찰을 할 때, 이 질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꿨는가?' 나는 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꿈꿨는가? 오늘 내게까지 삶의 역사를 이어준 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꿈꿨는가?' 하고 말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가정 안에서 꿈을 꾸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는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필리핀 마닐라 사목방문 중에 많은 가정들과의 만남에서, 2015년 1월 16일)

그렇다면, 꿈이란 무엇일까요? 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나옵니다. 첫째,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둘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셋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기대나 생각. 이 가운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꿈꾸는 능력을 지닌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 가정이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이 꿈은 헛된 공상이나 망상으로 기대하고 욕심내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과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 가정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각자의 노력이고 바람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꿈꾸는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교황님께서는 가정 안에 꿈을 꿀 공간을 지켜나가고, 배우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머물며, 선(善)을 향해 꿈꾸고 노력한다면 가정안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바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날들을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가정의 참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꾸는 능력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교황님의 당부를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모습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닌 믿음이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믿음이듯,우리 가정이 좀 더 성가정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루의 십자가를 기쁘게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하겠습니다. 그래서 늘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기대 안에 머무는 우리 가정을 꿈꾸고,그 꿈을 조금씩 만들어 갈 때,점점 더 성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성화되고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항상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항상."(2015년 9월 25일 미국 사목방문 중에) **25**

교회문화산책

김종헌 신부의 '나의 주님, 나의 노래' 5월의 애창곡 성모신심 찬미가(성가)에 대하여

김종헌 발다살 신부 | 대구평화방송 사장



서양의 많은 유명 작곡가들, 심지어 개신교 작곡가들까지 성모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여러 형태의 음악(무반주 합창, 화성음악, 독창, 합창 등)으로 만들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Ave Maria"(성모송), "Salve Regina"(하례하나이다),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 "Regina Coeli"(하늘의 여왕이여), "Stabat Mater dolorosa"(고통의 성모 서시어) 등 성모님을 노래한 곡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 특히 우리 대구대교구 신자들의 성모신심은 무척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초대 교구장이신 드망즈 주교님께서 성모님께 봉헌한 '루르드의 성모 동굴'(남산동 성모 당)이 한 몫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찾아뵙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톨릭성가」에는 성모님께 대한 노래가 무려 50곡이 넘습니다. 이 중 즐겨 부르는 외국 성가곡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성가집에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교회의 성모신심은 대단합니다. 18차례나 성모님이 발현하신 루르드에 지금도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로 출판한 「죠션어 성가」(1924년, 서울교구)와 비록 프린트해서 묶은 성가집이지만 한국교회 두 번째 성가집인 「공교 성가집」(1928년, 대구 남산동본당)은 모두 프랑스 선교 사제들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서울과 대구에서 사목하시던 신부님들이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이셨기 때문에 자기 나라(프랑스)에서 부르던 성가를 통해 그들의 성모신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성가, 그 중에서도 성모신심 성가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성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풍의 성가는 3/4, 6/8박자를 주로 사용하고, 성가의 감미로운 선율은 우리의 감성과 잘 맞았기 때문에 한국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성가가 되었고 이런 음악을 통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가는 우리의 신앙심을 고양시킵니다. 성모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성모님을 본받는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½**

재미있는 교회 상식

성당의 종류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축성한 건물로 신자 공동체가 기도하고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인 성당은 전통적으로 기능과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바실리카(basilica)라고 불리는 대성전(혹은 대성당)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집 회공간인 공공건물에서 비롯된 명칭인 바실리카는 4세기 성당 건축의 기초가 된 형태로, 로마의성 베드로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과 같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규모가 크며 교황님의 특별한 전례의식이 거행되는 성당을 일컫는데 세계적으로도 그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바실리카라는 이름은 교황청의 특별한 허락으로 붙여지며 그에 따른 특권도 부여됩니다.

둘째는 카테드랄(cathedral)이라고 불리는 주교좌성당입니다. 한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으로 제단 위에 주교님의 전용 좌석인 주교좌가 있는 성당을 말합니다. 주교좌란 교구장 주교님의 설교와 가르침 등 교도권과 사목권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구에는 계산성당에 이어 범어 대성당이 완공됨으로서 두 개의 공동 주교좌성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흔히 본당이라 부르는 일반 성당이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부가 상주하면서 정해진 관할구역을 사목하는 각 본당을 말합니다. 본당과 관련해서는 공소도 있습니다.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인 공소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날마다 미사가 봉헌 되지 못하고 주일이나 필요한 때에 관할 본당 신부님이 들러서 미사나 성사를 집전하는 곳입니다

넷째는 경당입니다. 수도원이나 신학교 등 교회의 어떤 단체나 특수 공동체를 위해 마련된 전용 성당으로 성전을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구 행정구역 내에서 본당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제대와 감실, 십자고상이 구비된 곳입니다. 경당에서도 전례는 가능하나 주일미사와 같은 큰 전례는 정식 성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黑



성 베드로 대성전

주교좌 범어대성당

성당동 성당

대신학원 유스티노 경당

교구장 동정

■ 석가탄신일 맞이 동화사 방문



석가탄신일을 맞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5월 11일(수) 오후 3시 동화사를 방문하여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정평성당 견진성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5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 정평성당에서 132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식**

일시: 2016년 5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혼잡이 예상 되오니 신자 여러분께서는 <mark>대중교통을 이용</mark>해 주시기 바랍니다.

CH子子里2000至川堤型山

2016. 5. 30.(월)~6. 10.(금) 교구청 내 안익사 특설 전시장





미 사 안 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5월 24일(화) 19:30 다사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5월 23일(월) 11:00 수성성당		5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25일(수) 10:00 평화성당		5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25일(수) 19:00 성의여고 경당	_	_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성모의 밤

일시: 5.26(목) 19:30 장소: 월성성당 내 성모당 대상: 3대리구 내 전신자 문의: 3대리구청. 641-5648

성소ㅣ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윤 신부. (010)3777-4688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10(금)~12(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작은예수회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5.27(금)~29(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데레사. (010)2646-0583

천호성지 마태오복음 통독 피정

기간: 5.28(토)~29(일) 장소: 천호성지 피정의집

지도: 공현성 신부

문의: (063)263-1004~5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성소자 피정

기간: 5.28(토) 16:00~29(일) 15:00 장소: 공주시 수리치골 총원(별관)

대상: 대학생, 일반인 문의: (010)2844-6773

교육 | 모집 | 기타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9차)

일시: 5 23(월)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비수술적 재활치료 갓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패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 - 6476

남인도, 스리랑카 성지순례 및 체험여행

기간: 8.6(토)~18(목) / 선착순 35명 대상: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가족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문의: (010)3883-7004

미국가톨릭사립학교 7월 여름 캠프

기간: 7.17(일)~8.7(일) 22일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대상: 초4-중3

문의: (02)2258-8983(선착순 30명)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울진 베네딕도교육관 시설 운영

개인 피정, 개인, 가족 휴가(자체취사) 문의: (054)783-6684 / (010)5348-3431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백두정형외괴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비염,코골이,코성형) (1호선 성당못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의학박사/원장 신재흔(루카), 곽동석(아우구스티노)

이 원 의 료 기

혁안계 · 혁당계 · 휙체어 · 산소치료기

뜸·부항기·주열기·찜질기

체온계 욕창매트 환자용품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 곽앤신쯺이비인후과

🏠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관절,신경,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 영 득 (다윗)

Tel: 053)351-1704

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 대성히트펌프 지열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전력·조명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에너지 절약 컨설팅



T. 053)573-0205 (손 미카엘)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 문 의 ^{원장}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위치: 대구테크노파크벤처기업센터 (※ 대리점 모집, 일 배우실 분 환영)

행사 | 모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7.8(금)~10(일). 성주 무학연수원

대상: 만 19세-35세 청년

신청: 다음카페(youngbless)

문의: (010)9533-7352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기도회

진량성당 은혜의 밤

일시: 5.31(화) 19:00

주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일정: 특강, 찬양미사, 안수

지도: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진량성당, 856-7676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5.26(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남양성모마리아 성당 기공식 및 미사

일시: 5,28(토) 11:00, 남양성모성지 주례: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공동집전: 교황대사 파딜랴 대주교

문의: (031)356-5880

교육 | 모집

3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6.11~7.10(매주 토) 5주간 5주차 1박 2일 가족 피정

장소: 1대리구청 / 15만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미혼 자녀의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꿈트리 모집

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진로 탐색

위치: 지하철1호선 교대역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룻, 오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무료상담), 사이 버상담 / 상담전화: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가톨릭근로자회관 6월 영어성경공부 모집

개강: 6,1(수) / 월 3만원(교재비 별도) 창세기: 월, 수 10:10, 14:50, 17:00 티모테오·여호수아: 화, 금 10:10 여호수아·필리피: 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2578-5535

가톨릭출판사 가족회원 모집

가톨릭출판사 가족회원이 되시면

매월 1권의 신간 도서를 보내 드립니다 무의: (02)6365-1867

대구평화방송 프로그램 소개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

방송일시: 매주(토) 18:05~19:00 출연본당: 5.21(토) 삼덕 젊은이본당 5.28(토) 옥계본당, 6.4(토) 이곡본당

문의: 251-2654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원성광(하상 바오로)

이희영(율리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주소록은 2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판매가: 5천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박옥순(요안나) 영주(젬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시티!! 드라마동 10층 14호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 심 내 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フ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중 드린시으로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건어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mark>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mark>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 · 덴마크 · 독일 보청기 서 문 점 동 인 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착 착추·관절및 뇌·신경클리닉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저림,진전,요통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 🥶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mark>딱</mark>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